

그대로 공했으니 공한 도리가 없이 공했다!

25면에서 계속

하시겠습니까? 그걸 파악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자기 몸, 생활, 한 식구를 지켜 나가는 것도 다 못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질에 오면 요기 놓고 조기 놓고, 잘못됐다 잘못됐다 참견이 많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옳고 이걸 때버리면 안 되고 이걸 붙여야 되고 이걸 모셔야 되고 이 야단들입니까? 자기 부처 하나 챙기지 못하는 분들이 많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처를 챙겨야 이겁니다. 아까 내가 컴퓨터 얘기 했죠. 그때 미처 얘기 못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컴퓨터에다 항상 입력을 해 놓아야 쓰죠? 그리고 자동적으로 나오죠? 그런데 일반 컴퓨터는 물질적으로 설치돼 있어야 입력을 할 수 있죠. 돈을 주고 사다가 시스템을 전부 해 놓아 그걸 착착 들어가 맞췄죠. 그런데 우리는 자동적으로 돼 있어요. 뭐 여러분이 그렇게 잘 맞춥니다.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그러나 이것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몰라요! 우리 생각으로 자동적으로 입력을 해 놓는다는 것도 모르고요. 우리가 살면서 그냥 돌아가는 게 바로 겁니다.

그런데 거기 맡기는 것도 그냥 맡기는 것만이 아니라 입력을 하고 돌아가라 돌아가라 이러고 놓고 돌아가라. '내 주인공만이 해결을 할 수 있다.' 이게 입력이예요. '내 주인공만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다.' 하고 거기 그렇게 놓으면 자동적으로 입력한 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건 순간순간 돌아가는 우리 생활의 지침이지만 우리나라를 건지는 데도 이 세계를 조절 안 하고 입력을 안 해서 안 되는 거지요. 어디에서 뭐가 들어오는 지 어디에서 뭐가 끼어드는지 그걸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입력을 해 놔야 레이더망에도 잡히고 레이더망에도 또 통신이 오고 가고 이렇게 되죠. 복잡하다고 생각하지만 복잡한 게 하나도 없죠. 자동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갖춰진 그 다섯 가지의 재료를 쓸 수 있는 자동적인 시스템. 그 시스템의 다섯 가지가 전부 돌아가면서 레이더망에 걸리면 여기서 통신을 해서 다 끝낼 수 있게 하고, 입력을 하는 대로 다섯 가지가 다 돌아가면서 입력이 됩니다. 모든 게 이렇게, 쪼그만 거 쓰면 쪼그만 거 쓰는 대로 입력이 돼서 쪼그대로 쓰고 큰 건 큰 거대로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돌이 아닌 도리를 알라. 나뭇 발겨해아만이 돌이 아닌 도리를 알고, 돌 아닌 도리를 알면 돌이 아닌 나뭇을 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돌아감으로써 월(月)세계도 내가 될 수 있고 내가 월세계도 될 수 있고, 태양의 근본이 내 근본이 될 수 있고 바로 내가 될 수 있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주 뜨거워서 못 사는 데도 생명이 있고 아주 차서 못 사는 데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게 다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너무 약해서 부처님께서 모두 안아서 응해 주셔도, 그게 굴러 나와도

대체 무쇠는 무쇠대로 있더라 이런 게 있어요. 그거는 깊숙하게 넣어서 움직를 못하게, 이 세상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연유도 있죠. 없는 게 아니에요. 모든 생명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이 따로 보지 않는다면, 부처님의 도리로 아주 마구나라도 따로 보지만 알는다면 선자(善者)다 마구나다 외도다 이런 것이 따로 없이 그대로 우리가 참나참나 돌아가면서

과거는
지금 현실에
짙어지고 나와서
살고 있으니
없고!

모두 벗이 되고 나 아님이 없고 모두 그렇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부처님 도리를 배우는데 밥이나 떡이나 놓고 '아이고 관세음보살, 날 좀 도와 주시요!' 하면서 바깥으로 비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방에 앉아서 텔레비전으로든 뭐로든 전 세계를 보고 듣고 사시죠. 그렇다면 지금 얼마나 바쁜 세상인 줄 아십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그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참나참나 돌아가면서, 뒤에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고, 부부가 함께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들어오고 하는 바쁜 세상에서 지금 움직거리고 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전처럼 여자는 밥이나 해 먹고 살림이나 하고 사는 세상이 아니라 집안에서 살림을 해도 남편을 반 이상은 리드해 줄 수 있는 아내가 돼야만이 남편이 성공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지금은 아내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도 그렇게 뛰어야 하는, 뭉뚱이가 팔팔 뛰어서 뛰는 게 아니라 아내가 정신력으로 뛰어서, 천 리를 뛸 거를 만 리를 뛰어서 남편의 앞을 닦아 준다. 이런 문제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뭉뚱이로 돌아

다니면서 치맛바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 빼놓고는 없어요.

아까 한 말을 여러분은 그냥 아무렇게나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주장자, 안테나 주장자에 레이더망이 있고 거기 컴퓨터가 설치돼 있고 탐지가 설치돼 있고, 천이통 즉, 무선통신기가 설치돼 있고 또 신축통 즉, 팩스가 설치돼 있고 말입니다. 그 다섯 가지 여섯 가지의 시스템이 사람에게는 다 아주 첩첩같아 돼 있어요. 이게 자동적인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하죠. "정정함을 어찌 알았으리까, 여여함을 어찌 알았으리까, 갖추어 가지고 있음을 어찌 알았으리까, 또는 일체 만법을 능히 들이고 뉘를 어찌 알았으리까."

여러분한테 한 말을 되하고 한 말을 되하고 이러지만 여러분이 똑같은 말이라도 자기가 실천중 행하는 데에 그 뜻을 적용하느냐, 또 그렇지 않으면 이론으로만 듣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갖가지로 흘리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어떻게 놓고 가느냐는 거지요. "나를 믿는데도 그렇다. 나는 놓고 가는데도 그렇다." 그러는데, 놓고 가는 줄 알면 놓고 가는 게 없어요. 놓고 간다 하는 것도 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우습게 들으시면 참 억울할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찌다가 나와서, 별이나 나비가 날아다니다가 창문이 밝으니까 그게 나가는 문인 줄 알고 인으로 쪼다다 그냥 떨어지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나가고 들어오는 문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어디고 걸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까지도 걸리지 말아야 한다 이거지요.

자기가 잘못해 놓고 그게 걸려 가지고 '이거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쓰나.' 하면서 그저 거기에 걸려 가지곤 온통 그냥 마음을 위축시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도 모르면 통과 통과 하라고요. 잘못했으면 잘못된 걸로 통과하고, '어!' 하고 통과해요. 그렇게 굴러다 보면 그게 진리에 순응하는 거라고요.

'이게 맞고?' 하고서는 그냥 붙들고 있는데, 화두를 누구한테서 받는 게 아니예요. 얘기를 듣는 거지요. 얘기를 듣고 거를 삼아서 내가 생각해 보는 거지 받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놈이 맞고?' 하기 이전에, 뭐긴 뭐예요? 이 세상에 어찌다가 나온 놈이지요. 하하하... 어찌다가 나온 놈이 뭐긴 뭐예요? 나온 놈이기 때문에 움직거리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고 오고 부지런히 뛰고 온통 정신이 왔었다 갔었다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고, 온통 눈도 그렇고 귀도 그렇고 발도 그렇고 손도 그렇고 입도 그렇고 모두가 그냥 강중강중 뛰는 셈입니다.

아주 그렇게 돌아가요. 그냥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무슨, 시간을 생각하고 공간을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냐? 급하게 그냥 똥이 마려워서 변소간에 들어갈 때 시간 보고 들어갑니까? 안 그러죠? 배고파 죽겠어

서 밥 먹는데 몇 시인가 보고서 먹는 사람도 없어요. 인제 다 치워 놓고 '아이, 몇 시나 됐나?' 하고 보거나 출근할 사람이 보는 거죠. 그때 벌써 급한 거는 다 해 놓고 쳐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보는 거는 벌써 이차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참 급해서 일할 때는 초월해서 그냥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살림살이가 전부 공했다 이런 소립니다. 이 공한 도리를 알면 공한 데만 또 신경을

미래는
아직 가지 않았으니
없고!
현실은
참나참나 돌아가니까
없노라!

쓰는데, 그대로 공했으니 공한 도리가 없이 공했다 이거지요.

이 운양에 지원을 내면서 가만히 보니까... 여기가 돼지 기르던 타라고 그러는데, 돼지가 따로 없어요. 내가 이런 얘기 하나 할까요? 한 부모가 어느 산골에 살면서 삼 형제를 길렀어요. 그런데 막내는 아주 늦게 낳았죠. 옛날이야 지금처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랬으니까요. 늦게 생겨서 그거 낳아 놓고선 어린 거를 두고 부모가 고만 죽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형들 둘만 있으니 형들이 사냥을 하다가 그걸 팔아서 먹고 살고 이러다가 형들마저 다 죽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보고 배운 거는 그거밖에 없으니 할 수 없이 사냥을 나가서 토끼나 짐승들을 잡아다가 팔아서 연명을 하고 살았답니다. 하루는 산골짜기에 가니까 사슴 두 마리가 그냥 붙어서 아주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저거라도 잡아서 갖다가 팔아서 입에 풀칠을 하겠다 싶고, 또 그레이트이 남한테 꾸어다가 먹은 쌀도 좀 갖겠다 싶어서 아주 좋아서 활로 그냥 쏘아 버렸단 말입니다. 새끼 두 마리가 비비고 놀다가 그냥 한 꼬챙이에 다 꽂

혔단 말입니다.

그래서 집으러 가려고 막 나서는데 어미 사슴이 또 왔어요. 어미 사슴이 와서 그 새끼 사슴에 꽃힌 화살을 빼기 위해 그냥 발버둥을 치는데 거기서 피가 그냥 콧물처럼 쏟아져서요. 그러니까 어미 사슴이 막 그냥 엉엉 울거든요. 저 어린 사슴마저 집으면 오늘은 수지가 맞겠다 싶어서 화살 하나를 또 겨냥하려고 그러니까 아, 쏘지도 않았는데 그냥 어미가 쓰러져요. 참 이상스럽다 그러고 거두어서는 내려가 보니까 어미 사슴이 그냥 새끼 사슴을 안고 죽었어요. 그래서 아주 이상스럽다고만 생각을 했죠. 지금 같으면 그 뜻으로라도 좀 잘 텐데 아마 머리가 좀 뚱뚱한 모양이

지요. 그래서 집으로 내려와 가지고선 화살을 빼고 그 어미가 왜 죽었나 보기 위해서 동네 여러 사람하고 배를 갈라 보니까 창자가 모두 동강동강 끊어졌어요. 그 동강동강 끊어져서 죽은 걸 보고 그때서야 그걸 안 거예요, 개가. 나이 20세도 안 됐지만 자기 어머니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에 '아하! 이것도 역시 우리 엄마와 같구나.' 어린 자기를 두고 엄마가 돌아가실 때 자기 손을 붙들고 눈을 감지 못하던 생각이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은 돼지가 사슴이나 토끼나 다 엄마가 있고 부모가 있다는 생각을 했고 또 사람이나 짐승들이 부모가 자식이 되고 자식이 또 부모가 되고 이러한 도리를 알았던 말입니다. 여태 그거를 몰랐거든요. 그 도리를 알고 나서 그거를 그냥 판 게 아니라 꼭 싸서 자기가 짊어지고 가서 그 집은 자리에다가 물어 뒀어요. 물어 주고 그때서부터 집도 버리고 다 버리고 절로 들어갔어요.

절로 들어갔는데 스님이 '뭘 허러 왔느냐?' 하니까 '제가 이런 경험을 해 보니까 덧없이 살기는 정말이지 싫습니다. 외롭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하고 먹을 것도 주저로운 데다가 더욱이 인제는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어미 사슴이 그렇게 죽은 것을 보니까 내 마음에 변화가 와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여길 왔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스님이 있다 하시는 말씀이 "너는 그거를 아느냐?" "뭘 말입니까?" "네가 공부하면 저 절로 알게 되느니라. 그 어미 사슴이 누구였는지 그 새끼 사슴이 누구였는지 내가 상세히 알 수 있을 것이니라" 하시거든요. 그거를 알기 위해서 정진을 한 겁니다. 그거를 빨리 알려 줬으면 공부도 못했을 거예요. 아. 하여튼 지금까지도 이런 한 마음의 도리, 나 자체 잊기 이전을 찾으려고 열심히 했어요.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0년 3월 15일 국내지원위원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책 좀 사주면 안 되나요?

꽃향기는 바람을 거스르지 못하지만 착한 사람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세상에 흘러 전한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떠들지 않으면 스스로 볼 줄 모르고 부추기지 않으면 스스로 행할 줄 모르는 오늘 바람 넉넉히 안아... 어제는 탁발을 나갔습니다. 신문광고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이었지요.

500원씩, 천 원씩 보시를 받아 6만원을 모아 처소로 돌아왔습니다. 사흘은 더 팔품을 팔아야 광고비를 충당할 것 같습니다. '스님이 사찰운영을 어떻게 하기에?' 하고 물으시 모르지만 특별한 반연없이 신생사찰을 꾸리자니 포교비용에, 운영비에 쫓겨가는 날이 그치지 않았습니. 책을 펴내 사정을 바꿔 보려고 작년 말에 수행지침서인 『나를 알면 살기 쉽다』를 펴냈고, 얼마 전에 『나를 바꾸는 108배 대접회문』을 냈습니다. 두 권 다 제 나름에 부끄러움이 없겠다 싶었는데 책이 팔리지 않아 사정은 전보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볼자 여러분, 제 책 좀 사주면 안되나요?

전국 불교서점 및 교보, 영풍, 인터넷서점 등에 있습니다.

시방사에서 석호 함장

• 포교후원계좌 : 대구은행 034-10-003424 (예금주: 시방사)
문의전화 053)654-0408 / 법공양문의 053)253-1923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딱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 및 문의
볼자기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경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중,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장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단나 종양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원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발로 해

(특수기능성 두안족열 양말)



● 절수형 최고의 수명도 우미!
(법당에서, 참선, 명상, 성지순례, 등산, 운전, 고시수험생)

● 양말 내부의 금강저온양과 도트에서 노폐물, 독소, 나쁜기운 빼는 특급비밀!

● 신는 순간 발이 따뜻해지며 매끈매끈, 보들보들, 보송보송 100%보장!

☎ KBS (성로방송사)비밀, VJ북극대, 감성메가진 행복만오후)출연
SBS (0.2평의 기적)출연 BBS 불교방송 (무명술 뉘이)출연
동아일보 한겨레 법보신문 현대불교신문 등 다수 특별판매가 : 2만원 (매우인생)

주문처 : 서울법당 (02)-456-0035
부산법당 (051)-583-7886
대구법당 (053)-743-0063

☎ 씨씨연호 인터넷한글도메인 : www.법왕정사.kr